

“일심 동행, 동국대 새 미래 열자”

동국대 제18대 총장 보광스님 선출 2일 법인 이사회서...29년만에 스님 총장

“일심동행의 바탕위에 대학다운 대학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출발은 조금 늦었지만 괄목할 성과로 보답하겠습니다.”

5월 2일 동국대 이사회에서 제18대 동국대 총장으로 선출된 보광 스님(사진)은 ‘총장 선임에 즈음한 소회’를 통해 그동안의 과정에 대한 생각과 총장으로서의 포부를 밝혔다. 스님은 동국대 총장 선출은 전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 이후 29년만의 스님 총장이다. 보광 스님의 임기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약 4년간이며 4일부터 집무를 시작했다.

“스님이기 때문에 발전 기대”

제18대 총장 보광 스님은 성남 정토사 주지로서 허허벌판인 현재 정토사를 일군 사찰경영의 전문가이기도 하다. 또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전문위원 등을 맡는 등 불교계의 마당발로 통한다. 대각회 이사를 비롯해 중앙종회의원도 역임하는 등 종단 내에서도 넓은 인맥관계를 자랑한다. 이러한



구축을 자신한다. 앞으로 적극적 지원협조를 얻어내 발전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리 등 제도개선 과제

보광 스님은 이와 함께 총장선출 과정에서 ‘정치적, 편파적 검증’으로 비판을 받았던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에 대한 제도개선과 함께 연구윤리기준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스님의 논문 표절 시비과정에서 제심 청구와 소명기회 박탈 등의 절차상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스님은 “논문표절 시비는 개인적인 부주의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편파적이고 철저적인 판정이 큰 원인이었다”며 “관련제도를 재정비하고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 대학구조개혁 대응 등 관심

보광 스님의 이 같은 계획에도 동국대는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가장 먼저 4월부터 교육부가 진행 중인 대학구조개혁 평가는 동국대의 운명을 좌우할 대표적인 과제다. 동국대는 현재 이사장 일면 스님의 체제 하에 대응팀을 만들어 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총장 선임이 이뤄진 만큼 이에 대한 활발한 대응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세대 세브란스병원과 같이 학교법인 재정의 큰 힘이 될 의료원의 정상화 또한 과제로 꼽힌다.

스님은 총장으로서 가장 먼저 정각원 개혁에 착수했다. 정각원이 학내 불교신행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새 정각원장에 비구니 해주 스님을 임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불교대학 발전을 막았다는 지적을 받아 온 불교대학발전위원회와 불교대학교원초빙위원회 등 대학발전에 저해되는 기구들의 개편을 시급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스님은 “대이상 역풍에 휘둘리지 않고, 동국대는 순풍에 돛을 달고 미래로 나아가 한다”며 “앞으로 밝은 앞날을 주제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겠다. 모두가 힘을 모아 동국대 발전에 나서자”고 당부했다.

보광 스님은 1975년 동국대 불교학과를 졸업 후 1980년 동국대 대학원에서 불교학 석사학위, 1985년 일본 교토불교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스님은 정토학 분야의 전문가로 일본 조동종 개산조 도겐 스님의 <정법안장>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대작불사를 진행 중이다. 저서로는 <용성선사상연구> <정토교개론> <신라정토사상의 연구> 등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염불의 실천방법에 관한 연구> 등 150여편이 있다.

스님은 동국대 정각원장, 대외협력처장, 불교대학장, 불교대학원장 등을 역임했으며 9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100주년 기념사업본부장, 대외협력처장 등 학교 대외업무를 관장했다.

현재 정토사 주지, 대각사상연구원장, 한국정토학회 명예회장,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문화재청 문화재위원이다.

노덕현 기자 nodu@hyunbul.com
(관련 기사 2면)



해인총림 해인사 제9대 방장 원각 스님이 5월 7일 열린 추대법회에서 법장을 봉정받고 있다.

“홀로 바로 서야 참된 공부인”

해인총림 제9대 방장 원각 스님 추대법회

해인총림 제9대 방장 벽산 원각 스님이 공식 추대됐다.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선해)와 해인총림 방장추대위원회(공동대표 선해·향적·원백)는 5월 7일 대적광전 앞마당에서 ‘제9대 해인총림 방장 벽산 원각 대선사 추대 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방장으로 추대된 원각 스님은 불자와 법장 봉정 후 대중들에게 법어를 내렸다. 스님은 법어를 통해 “이 주장자 소리는 생사와 열반이 들어 아니며, 중생과 부처가 하나임을 나타내는 소식”이라며 “번뇌와 보리 그 어디에도 결림이 없고, 지옥과 부처를 통째로 삼켜 일법화도로 씹을 줄 알아야 본분남자라 할 것”이라고 설했다.

이어 “금일 대중은 시간과 출세간, 생사와 열반 그 어디에서도 살활자재하여 독행독보하는 출격장부의 길을 가야한다”면서 “수행자는 홀로 우뚝 설 줄 알아야 한다. 홀로 서지 못하면 참된 공부인이 아니다. 독과 대응 할 수 있는 수행자라야만 천상천하 비로정상을 확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회에서는 추대위원회와 종단 주요 스님들의 추대사와 축사 등이 이어졌다. 중앙종회의장 성문 스님은 추대사를 통해 “원각 스님은 발심출가 이래 오로지 회두참구에만 정진해 온 정통수좌의 표상이자 당대의 선지식이며, 해인총림의 유나로써 제방 남자들을 제정해왔을 뿐

만 아니라 재가불자 참선지도를 통해 간화선 대중화에도 앞장선 가야산문의 최고 종장”이라며 “총림 대중은 본래 자리로 돌아가 안정과 화합을 도모하고, 명안종사의 법맥을 갖춘 원각 큰스님을 중심으로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방장의 리더십과 권위를 실현함으로써, 자랑스러운 해인총림의 수행가풍을 더욱 크게 펼쳐주었으면 하는 것이 불자들의 한결같은 바람”이라고 말했다.

추대위, 7일 해인사서 개최 사부대중 1천여 명 참석 화합으로 총림 운영 다짐

해인사 주지 선해 스님은 고불문에서 향후 총림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다짐했다. 선해 스님은 “방장 스님을 모시고 문중과 대중간의 화합으로 총림의 당기를 굳건히 세우겠다. 해인총림의 전통인 용맹정진으로 총림의 기강을 굳건히 하여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수행총림으로 거듭 나겠다”고 다짐했다.

방장추대법회준비위원회 공동대표 향적 스님도 봉행사를 통해 “해인총림 대중은 제9대 방장에 취임하시는 벽산당 원각 대선사를 중심으로 대중화합과 원용살림으로 총림을 운영하겠다. 또한 총림을 설립한 정화 1세대와 2세대의 사상을 법고창신의 정신으로 계승하여 수행

과 교육의 중심도량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원로회의 의장 밀은 스님은 축사를 통해 “쪽에서 뽑아낸 푸른 물감이 쪽보다 더 푸르다고 했으니, 방장 스님을 뛰어넘는 제자들이 많이 나와 한국불교를 이끌어가는 씨앗이 되도록 지도해 주시라”면서 “그것이 사부대중이 오늘 가야산문의 방장을 모시는 뜻”이라고 축하의 뜻을 전했다.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수행정진의 총화라고 하는 해인총림에 눈 푸른 남자를 제정하며, 바른 길로 인도하는 눈 밝은 스승인 방장스님을 모셨다”며 “이제 이곳 해인총림에 스님의 덕화가 펼쳐져 수행가풍이 새롭게 서고 도제양성의 새로운 역사가 열릴 것”이라고 축하했다.

덕송총림 방장 설정스님도 “새로 추대되시는 원각 선사께서는 해인총림을 여법하게 이끌어 서래밀지를 진작하시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한편, 추대법회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원로의장 밀은 스님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합천 해인사=하성미 기자
(관련 인터뷰 3면)

문화재위원회에 불교계 인사 대거 위촉

문화재청 1일 위원 선임... 직지사 주지 흥선 스님 등 8명

전문위원에도 5명 진입

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5월 1일 문화재 보존·관리·활용에 관한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과 문화재위원장을 선

출했다. 특히 문화재위원에는 불교계 인사가 대거 이름을 올렸다.

문화재위원에는 해일 스님(건축문화재분과), 흥선 스님(직지사 주지, 동산문화재분과), 정범 스님(흥전사 주지, 사적분과), 미등 스님(전 불교문화

재연구소장, 무형문화재분과), 돈관 스님(은혜사 주지, 천연기념물분과), 화법 스님(불교중앙박물관장, 매장문화재분과), 보광 스님(동국대 총장, 근대문화재분과), 명법 스님(서울대 강사, 세계유산분과)이 위촉됐다.

전문위원에는 각급 스님(중앙종회의원, 건축문화재분과), 함철 스님

(중앙종회의원, 사적분과), 심주완 조계종 총무원 문화팀장(동산문화재분과), 이분희 불교중앙박물관 팀장(근대문화재분과), 박상준 불교문화재연구소 정책연구실장(세계유산분과), 박기련 조계종 총무원장정책특보(세계유산분과)가 위촉됐다. 문화재위원회 전문위원의 임기는 5월 1일부터 2017년 4월 30일까지다.

이와 함께 문화재청은 4일 문화재위원장으로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를 선임했다. 노덕현 기자

세연재 | 성태용 교수의 손오공이 기가막혀 14면



5월16일 광화문 禪의 진수를 만나자



광복70주년 한반도 통일과 세계평화를 위한 기원대회

세계 간화선 무차대회

불기2559
2015년 5월 16일(토) 오후 6시-9시
광화문광장

주최_ 대한불교조계종 주관_ 세계평화 기원대회 봉행위원회 연동회보존위원회
후원_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문의_ 02)730-6690